

중년전업주부의 음주경험

김지미* · 이정애** · 김성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한국의 음주 문화 실태는 중국의 인터넷 뉴스사이트 '차이나 닷컴(www.china.com)'이 월드웹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중국인에게 주의할 사항으로서 '주의'... "술 문화 유별나 단단히 각오해야", "한국에서는 술 마실 각오를 단단히 하라", "한국사람들은 일단 친구라고 판단 되면 더 마실 수 없을 정도까지 마시는게 보통이니 단단히 준비하라"고 경고할 정도로 (국민일보, 2001년 12월 19일자), 한 개인의 피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직장 그리고 나라전체의 건강과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한태선, 2000). 특히 청소년과 여성 음주에 대한 문제가 자주 보고 되고 있으며 여성음주의 경우 음주자의 비율과 음주량에 있어서 급증하고 있음이 제기되고 있다(대한매일, 2002년 5월 2일자). 통계자료에 의하면 20세 이상의 여성음주자의 비율은 1989년 32.1%에서 1999년에 54.9%로 높아진 것으로 보고되었다(통계청, 1999). 이는 최근 여성들의 사회참여증가,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여성 의식 변화, 음주에 대한 사회적 의미와 규범의 변화에 따라 여성들이 술을 마실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점 등에 그 원인의 일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여성음주는 연령층이 높을수록 마

시는 횡수가 증가하여 40-50대에 가장 높으며 남성들이 20-30대에 가장 많이 마시고 나이가 들수록 음주 횡수가 점점 감소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음주패턴을 보인다(허은정 등, 2001).

중년기 여성은 자녀 양육 역할이 감소되면서 자유감의 증가로 잠재된 능력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는 시기임과 동시에 생리적으로는 폐경(menopause)이라는 발달 위기 과정을 겪게 되는 한편, 사회 심리적으로는 사회와 가족내에서의 역할과 관계되어 가정에서만 안주한 것에 대한 압박감과 모든 인생이 남편과 아이들에 의해 지배되었다는 생각으로부터 오는 '공허한 동우리 증상',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한 죄책감, 부적절감 등의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서연옥, 1995). 이렇듯 신체적, 사회 심리적인 변화와 위기를 경험하면서 여성들은 잠재된 혹은 노출된 스트레스에 적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음주행동을 취하기도 하며(허은정 등, 2001), 이로 인해 음주와 관련된 가족, 배우자, 직장, 경제적 문제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렇듯 여성 음주율이 급증하고 있고 여성음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문제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문제성 음주인 알코올 남용이나 알코올 중독을 대상으로 거의 이루어져왔고 참여자 또한 남성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들어 사회적 음주나 적정음주의 개념들

*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시간강사
** 경북대학 간호과,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부속병원 소아병원

을 사용하면서 음주습관이나 음주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들이 시도되고 있고, 여성음주를 대상으로 한 양적 연구와 여성 알콜중독자의 음주경험에 관한 질적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이는 아주 극소수에 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적 음주경험에 관한 것은 연구된 바가 없다. 일상생활에서 많은 변화와 위기를 겪으면서 스트레스에 대처해가는 중년의 주부가 경험하는 음주행태는 남성이 경험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며, 일반 남성중심의 음주에 관한 연구결과들도 이들의 음주경험을 설명하고 이해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따라서 증가추세에 있는 중년전업주부들의 음주경험이 무엇이고 이들의 경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 문화적 환경 안에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Strauss & Corbin (1998)의 근거이론을 사용하여 중년전업주부의 음주경험을 이해하고자 한다.

II. 문헌고찰

The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NIAAA, 1990)는 음주유형을 세가지로 분류했다. 첫째가 사회적인 사용, 두 번째는 알코올 남용, 세 번째가 알코올 의존이다. 여기서 사회적인 음주는 통제적 음주(controlled drinking) 또는 정상음주(Normal drinking)로서 알코올로 인한 어떤 장기적 건강문제나 사회적 문제도 경험하지 않는 것이고 그들이 알코올 사용을 중단했을 때 어떤 문제도 경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Rosenberg, 1994). '술은 적당히 마시면 약이 되고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말이 있다(한태선, 2000). 즉 적당한 음주는 불안과 우울을 해소시켜 행복감과 자존심을 유지시키고 억제된 감정의 표현에 도움을 주어 인간의 정서에 긍정적 기능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촉매로서의 기능을 한다(Ashley 등, 1994). 신체적으로도 적당한 수준의 음주는 고혈압 예방효과뿐만 아니라 심장발작, 동맥 경화, 뇌졸중의 위험성 감소 및 폐경기 여성에서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의 위험을 줄여주는 등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이정태, 2000). 반대로 지나친 음주는 신체적

심리적 의존을 야기시켜 개인의 신체와 정신에 손상을 끼치고 더 나아가서 가정, 직장과 사회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즉 행동자제력의 상실, 일시적 기억상실, 심리적 의존, 금주의 시도 및 실패, 내성, 정신신체적 후유증, 사회적 후유증, 가정적·경제적 곤란, 직업상의 문제, 친구와 이웃의 문제, 법적 문제, 의학적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공수자, 1995; 안황란 등 1999).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음주관련질병과 그 질병에서 음주로 인한 사망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음주로 인한 수명 손실량이 남성의 경우 3.13년, 여성의 경우 1.11년이고 음주로 인한 사망이 모두 제거되었을 경우 1995년도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수명은 남성이 69.49에서 72.62세로, 여성이 77.36에서 78.47세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하여 음주가 우리나라의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보고하였다(천성수, 1998). 또한편으로 경향신문 2002년 1월 18일자 기사를 보면 2001년 한해동안 우리나라의 각종 범죄행위자의 44%가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어 술이 강력범죄의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음주행동의 발생요인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알콜중독의 질병이론, 학습이론, 사회-인지 이론, 생물학적 이론, 성격이론, 정신분석이론, 사회-문화이론 등이 있으며 음주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왜 사람들이 음주를 시작하게 되는가, 어떤 요인들이 음주를 지속시키는가와 왜 어떤 사람들은 심각한 음주관련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많이 마시는가 등에 대한 해답이 필요하다(공수자, 1995). 음주의 원인에 대한 설명의 하나로써 외로움은 개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양적이나 질적으로 개인이 기대하는 것보다 부족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Peplau & Perlman, 1982) 인간이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면 이에 대한 부정적인 대처방안으로 지나친 음주나 흡연 등의 탐닉적인 행위를 취하여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옥수, 1999).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주와 같이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연구한 결과 이러한 행위는 첫째로 목적 지향적 행위이고 두 번째는 개인의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행위로 외로움이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외로움, 우울, 사회적 지지의 부적응이 음주를 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보고하였다(Gambert, 1997). 음주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보고가 있는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알코올에 의존하거나 중독되지 않으며 건강한

음주습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성기철, 1997; 안황란, 1999).

전통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여성적 행동이기 보다 남성적 행동으로 간주되었고 유교적 가치관에 근거한 음주에 대한 성별구분은 여성음주를 사회적으로 용인하지 않는 음주문화를 반영하는 것이다(한태선, 1998). 최근에는 음주소비량과 관련되어 여성 음주자가 가장 관심이 되고 있으며 여성음주의 급증으로 여성 개인의 건강문제뿐 아니라 남편이나 자식과의 갈등, 가정 폭력 및 가정 파탄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일부 지역 여성의 음주양태 및 음주관련문제에 관한 연구에서는 여성의 연령층이 높을수록 마시는 횟수가 증가하여 40대에서 가장 높으며 일주일에 3번 이상 마시는 경우가 26.1%나 차지하였고 27.3%가 음주와 관련하여 가족, 배우자, 직장, 경제적 문제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허은정 등, 2001).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음주시작 연령이 늦고 술을 마시는 빈도와 양이 적지만 혼자 마시는 경우가 많고 음주시작에서 음주로 인한 폐해를 겪게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으며 남성보다 신체적 피해가 더욱 크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를 위해 술자리를 갖는 남성음주와는 달리 여성이 음주를 하게 되는 원인으로는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이혼이나 사별, 남편의 무관심, 가사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직장과 가정에서의 이중역할 부담 등)나 정신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즉 여성음주는 남성음주와는 분명히 다른 동기과 패턴을 가지며, 음주로 인한 경험 역시 남성의 그것과는 분명히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에 살고 있는 중년 전업주부들로 음주에 대한 첫 경험이나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음주를 시작한 정상 음주자(Normal drinker)로 알콜중독자 선별검사(National Alcoholism Screening Test)에서 3점 이하인 자와 음주로 인한 질병력이 없는 사십대(40~50대)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01년 9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여러 번에 걸친 심층면담 및 관찰로 이론적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면담 시작 전, 참여자에게 연구목적과 주제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면담은 참여자가 편한 시간에, 참여자가 있는 곳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였으며, 1회 면담은 1시간에서 2시간정도 소요되었다. 참여자들은 연구자와 안면이 있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며 더욱 진전된 대화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연구문제와 관련된 반 구조화된 질문을 사용하여 참여자가 가능한 자발적으로 대화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질문의 내용으로는 "술은 언제 처음 마셨나요?" "술을 마시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술은 왜 마시나요?" "술을 마시면 가족이나 주변반응은 어떤가요?" "술로 인한 에피소드나 실수한 적은 없나요?" "알코올중독으로 발전할 것 같진 않나요?" "술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등이었

<표 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나이	학력	결혼기간	가족구성원	음주특성		
				음주량	음주기간	NAST 점수
45세	대졸	20년	남편, 1남1녀	맥주 1병/주	25년	2점
45세	고졸	22년	시모, 남편, 1남1녀	소주 2병/월	23년	3점
45세	대졸	19년	남편, 1남1녀	소주 1병/2주	25년	2점
41세	대졸	18년	남편, 1남1녀	소주 1병/주	15년	2점
40세	대졸	12년	남편, 1남2녀	소주 1병/2주	15년	2점
42세	고졸	12년	남편, 1남1녀	소주 1병/2주	18년	2점
43세	고졸	23년	남편, 2남	소주 1병/1주	15년	2점
50세	고졸	25년	남편, 1남1녀	소주 1병/2주	6년	1점
42세	고졸	16년	남편, 1남1녀	소주 1병/1주	15년	2점
40세	고졸	15년	남편, 1남, 2녀	소주1/2병 /월	10년	0점

다. 면담 중 표현된 언어적 의사소통뿐 아니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내용까지도 포함하였으며 대화의 내용은 참여자의 양해하에 녹음과 필기를 하였다.

일차 면담을 통한 내용을 문자로 바꾸는 transcription 과정을 거친 후 3명의 연구자가 수집된 자료를 함께 낭독하면서 의미를 찾는 분석을 4차례 실시하여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개념에 일치하였다. 이후 이론적 민감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음주에 관한 문헌과 근거 이론적 접근에 전문성을 지닌 간호학 전공교수 1인의 자문을 통해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일차면담에서 발견된 개념들을 참여자를 통해 확인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추가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자료의 분석은 Strauss와 Corbin (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방법의 분석절차를 이용하였다. 근거이론의 연구현상은 사회심리적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기본적인 사회심리적 속성과 과정들로, 사람과 사회적 역할사이의 상징적 상호작용에 근거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행위를 재조직하는 과정으로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관점을 제시해 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중년의 전업주부들이 경험하는 음주현상을 이해하고자 근거이론적 접근을 선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단계로는 3명의 연구자가 10명의 참여자들과의 면담내용을 기록한 녹취록을 반복하여 검토하는 작업을 네 차례 실시하여 개념들을 이끌어내었다. 이 개념들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인 범주들을 찾아내는 개방코딩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개방코딩 과정에서 나타난 개념과 범주들을 고려하여 이후의 참여자들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며 내용을 보완하였다. 개방코딩 과정에서 나타난 범주들을 한 단계 더 추상화하여 상위범주들을 찾아내고, 현상의 발생 또는 전개, 발전과 일정한 인과적

관계에 있는 선행사건, 즉 현상이 일어나도록 하는 모든 원인을 일컫는 인과적 조건과 중심적 관념 또는 사건으로서 참여자가 일련의 전략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대상(목표)인 중심현상, 현상이 발생하는 일련의 구조적 장으로서 속성과 정도의 영역인 맥락, 주어진 상황과 맥락 속에서 존재하는 현상을 관리하거나 대응하려는 개인 또는 집단의 작용, 반작용인 전략, 중심현상이 전략을 통해 해결되는 과정인 결과로 분류한 다음 이들의 속성과 정도의 영역을 매개로 서로 연결하는 연결코딩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때 근거 이론적 접근에 전문성을 지닌 간호학 전공교수 1인과 연구자들이 세 차례의 집담회를 가지며 근거자료를 검토하였다.

지속적인 비교와 질문을 통해 얻어진 이론적 표집에 대해 각각의 범주가 제대로 일치하는지 참여자에게 확인, 다시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참여자가 동의하였으며, 근거이론의 전문성을 지닌 간호학 전공교수의 동의를 받아 패러다임 모형을 도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중년전업주부의 음주경험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출된 개념으로는 '어울림' '우울함' '정체성에 대한 회의' '자신감 증대' 등 99개이고, 이 개념들을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관계유지' '좌절' '받아들임' '자기드리내기' '하소연하기' 등 22개의 하위범주와 '어울림' '속앓이' '접근성' '변화' '벗어나기' '자기표현' 등 10개의 상위범주로 구성하였다. 분석한 범주들이 중심현상을 축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범주 및 과정에 대한 패러다임으로 작성하였다.

2. 과정분석

이 과정은 중심현상의 발생에서부터 소멸까지의 전 과

〈표 2〉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개념 및 범주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패러다임
어울림, 사회생활의 융화, 분위기에 동화, 동료와의 만남, 독려	관계유지	어울림	인과적 조건
스트레스 받음, 외로움, 쓸쓸함, 무기력, 답답함, 억울함, 무위감, 허무감, 권위적 남편	좌절	속앓이	
시아머니와의 갈등, 자식에 대한 상심, 부부간의 믿음상실, 외전 불일치, 양가감정	갈등		
시집살이, 남편의 독단, 남편의 무시, 속이 문드러짐, 속이 삭음	황병	불안	
정체성에 대한 회의, 미래의 불안감, 생활의 궁색함, 시어머니와의 싸움	불안		
술이 가까이 비치되어 있음, 값이 저렴, 숨어서 먹기 편함, 쉽게 구함	손쉬움	접근성	

〈표 2〉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개념 및 범주 (계속)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패러다임
남편의 체념, 남편의 이해, 시모의 허용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떳떳해짐 타인의 기피, 따돌림, 여성음주에 대한 비난, 남편의 이해부족, 자식이 싫어함. 가족의 염려, 남편과 싸움	받아들임 거부됨	주변의 반응	맥락
두드러기 남, 얼굴 빨개짐, 필름 끊김, 살찔, 지방간 진단, 음주량 증가, 신체반응 둔화	신체적 변화	변화	
방뇨, 만취, 폭주, 오기, 배짱, 기분 좋아짐, 가벼움, 편한 상황에서 무절제	심리행동적 변화		
말이 많아짐, 자신감 증대, 카타르시스 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변신, 문제에서 도피하기, 망가지고 싶음	자기 드러내기 자기 깨부수기	벗어나기	중심현상
성격이 활달함, 적극성, 내성적임 문제해결 방법의 부족, 자아존중감 알콜중독에 대한 걱정, 술이 맛있음, 씬, 시원함	성격특성 문제해결자원 술에 대한 인식	개인자원	중재상황
말을 많이함, 활달함, 적극성, 불안을 얘기함 신세한탄, 다툼, 닳하기, 핑계되기, 자기변명, 자기합리화	자기 통찰 하소연 하기	자기표현	대처전략
스트레스 풀림, 행복감, 느긋함, 즐겁게 삶 의도적 절제, 절주, 여성성의 인식, 술이 아닌 다른 대응방법을 찾고자 함	편안함 반성적 돌아봄	적절한 관계	결과
화남, 우울함, 부부싸움, 허무함 습관적 음주, 술이 고풍, 술이 생각이 남	불편함 의지하기	부적절한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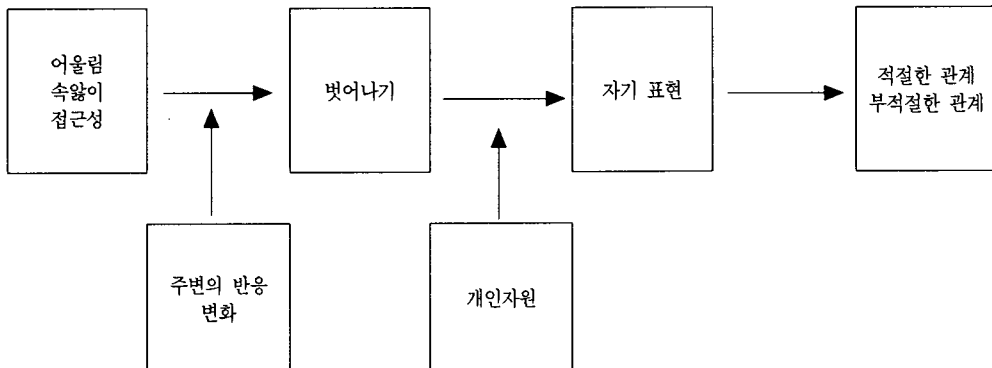
정을 관찰하는 보조적 분석도구로, 본 연구에서 중년전업주부의 음주경험은 여러 원인에 의해 마시게 되며 다양한 맥락과 중재상황 속에서 '자기표현'을 통해 '벗어나기' 과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가진다.

- ① 어울리기 위해, 속앓이의 해소를 위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로 음주경험을 시작하는 과정
- ② 음주 시 주변의 반응, 자신의 신체적 변화, 심리 행동적 변화를 시작하는 과정
- ③ 음주를 통해 벗어나기를 경험하는 과정
- ④ 벗어나기 위해 자원을 인지하는 과정
- ⑤ 자원에 따른 자기표현을 선택하는 과정
- ⑥ 자기표현 방식에 따라 음주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1) 인과적 조건

근거이론에서 인과적 조건은 현상의 발생 또는 전개, 발전과 일정한 인과적 관계에 있는 선행사건 즉 현상이 일어나도록 만든 모든 원인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울림' '속앓이' '접근성'의 범주가 중심현상인 '벗어나기'를 일으키는 인과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인과적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울림〉 '남편의 반주습관에 조금이나마 곁이 마시다 보니 지금은 맥주 2병은 기분이 좋을 정도로 마셔요.' '대학교때부터 자연스런 뒷풀이 장소에서 마시기 시작했고 ...' '집안사정이 안 좋아 내가 직정생활을 시작해야 했는데 그때부터 가끔씩 헌전 두전 마신 것 같애.' 〈속앓이〉 '나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어디다 풀데가 없어. 누구한테 얘기하자니 첩피하



〈그림 1〉 중년전업주부의 음주경험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고. 다른 엄마들은 애인들도 만들고 그러는데 난 그런것은 못하겠어. 내가 워낙 소심하고 남편이 권위적이어서. (스트레스 해소 대상, 방법의 부재) 그러니 자연히 술밖에 없지. 가정 씬잡아. 남편문제로 술을 제일 많이 먹지. 속이 타니까.' '남한테 어떻게 다 얘길 해. 이때껏 살면 거의 가슴속이 문드러지고 속은 다 삭지. 근데 나같은 경우는 이것을 남편한테도 말 못하고 그렇다고 친정에도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혼자 속병이 되더라고. 나이차가 많으니까 날 무시하고 무조건 나보고 따라하라고 하고 싸움도 안돼. 날 무시하니까. 속을 풀 수 있는 대상도 없고 풀 방법도 마땅찮고 하지' <접근성>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 그저 습관적으로 마시고, 내 손 가까운데 항상 있으니까 조금씩 마시기 때문에 가족들도 잘 모를때가 많아요.' '직정도 안나가고 집에서 뚜껑이 할 일도 없으니까 자연히 동네 아주머니들과 어울리고 고스름치면 술내기도 하고 그러거든. 그러다 보니 밖에서 먹을 때 보다 집에서 먹으니 맘이 안정되고.....'으로 중년전업주부들이 음주를 하게되는 원인이 된다.

2) 맥락

맥락이란 현상이 발생하는 일련의 구조적 장으로서 속성과 정도의 영역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년전업주부들의 음주를 통한 '벗어나기' 과정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즉 중년전업주부의 음주경험 과정 중 그들의 가족이나 신체적, 심리행동적 반응에 따라 '벗어나기'과정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반아들임> 시어머니도 술마시는 것 알아. open 시켰어. 남편이 같이 마실려고 하니까 눈치보지 않게 되는 것 같아/ 나이를 먹어갈때 따라 시어른 앞에서 마실 때 거리낌이 없어. <거부됨> 혼자서 조금씩 마시다가 다른 동료들하고 같이 마시고, 일부러 환전하자고 하면서 다른 남선생하고 다 마시게 되고 오히려 남선생들이 그 여선생을 피하게 됐데. 그 여자 무섭다고 하면서...../ 집에서 있는 여성들이 술을 자꾸 마시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아./술을 많이 먹지는 않아도 먹는 횟수가 자주 되니까 남편이 싫어하고 말다툼을 하지. 싸우고 나면 나도 후회하고 허무하고 속상하고... 아이들도 그런 모습 보면서 엄마가 술을 먹으니까 그렇지 하면서 빠지더라구요. 어쨌건도... 집안이 편치 않을 때가 있지요. 불화가 될 때가 있어요. <신체적 변화> '사회생활 하면서도 술에 대한 거부반응은 없었고 어디서든 자리가 되면 조금씩 마시고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술을 먹으면 얼굴이 빨개져서 온 동네에 소문을 내고 다닌 다

니까요.' <심리행동적 변화> '한번은 저녁모임이 있어서 맥주를 마시다 보니 밤 12시가 지났고 집에 오다가 소변이 너무 급해서 길 어두운 곳 주차된 뒤에서 소변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이 술먹으면 실수구나 했어요.'. '부모 그만큼 모셨으면 됐고 자식들 저만큼 컸는데. 나도 내 하고 싶은대로 해도 되지? 하는 오기나 배짱이 생기면서 그냥 멍게 되더라고.....'

3) 중심현상

중심현상이란 중심이 되는 관념 또는 사건으로서 대상자가 일련의 전략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대상 또는 목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중년여성의 음주경험은 '벗어나기'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년 여성들은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하여나 속앓이를 풀기 위해, 손쉽게 술을 먹을 수 있기에 술을 마시게 된다. 이런 음주는 가족으로부터 다양한 반응과 음주경험자 자신의 신체적 변화 및 심리행동적 변화를 동반하며, 음주를 통해 자신감이 증대되며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자기를 드러내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한편, 차라리 문제에서 도피해서 현재 자기 모습과는 다른 자기를 되고 싶어 자기를 깨부수고 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여 구속되는 것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드러내기> 기분이 상승되니까, 말이 많아져. 나 같은 경우 할 얘기가 있으면 술을 조금 먹고 얘기하게 되. 술을 먹으면 자신감이 생겨서 평소 못하던 얘기도 하게 되는 것 같애..... / <자기 깨부수기> 도피처가 어닐까? 편안해 지려고 하는 것 같애. 근데 현실에서 도망치는 것은 아니고..... / 내가 아닌 다른 나로 변신하고 싶은 거야. / 전에 애 여빠하고 남편친구하고 저녁 먹고 술을 먹는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냥 눈물이 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울은 적은 없는데.....

4) 중재상황

이것은 현상과 관련된 광범위한 구조적 상황을 말하며 주어진 상황 또는 맥락 속에서 전략을 추진하거나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범주를 말한다. 음주를 통한 '벗어나기'는 중년여성들이 가진 개인의 자원에 따라 대처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들의 음주 경험에 대한 구조적 상황은 개인이 가진 성격특성이 어머니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어느 정도인지, 이들이 가진 문제 해결 자원이 어떤지, 술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알코올 중독에

대한 걱정을 하는 등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성격특성> 지금이라도 술 안마시려면 안 마실 수 있지만 구지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즐겁게 사는 것도 건강인데 뭐. <문제해결자원> 책을 읽었는데 모든 것이 자신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이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있다는 데 동감을 했어...그래서 서서히 불만을 얘기하면서 얘기 하려고 해. <술에 대한 인식> 남편과 늘 함께 마시는 습관이 있는데 이리다가 일कु 중독이 되는 것은 아닌지 몰라?

5) 전략

이것은 일정한 상황이나 주어진 맥락 속에 존재하는 현상을 관리하거나 대응하려는 개인이나 집단의 작용 혹은 반작용을 의미한다. '벗어나기'의 음주경험은 중년전업주부 개인의 성격에 따라 여성 개인의 활달함이나 적극성으로 자기통찰을 갖기도 하지만 억누르는 상황에 의해 주변으로 탓을 돌리고 신세를 한탄하며 넘두리, 핑계, 자기변명, 자기 합리화 등 하소연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 통찰> 술을 마시는게 아니구나. 내 몸과 안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사람들이 모두들 적극적으로 활발하다고 하면서 좋아해. 나는 술을 좋아하고 잘 마시는 편이지만 평상시에는 모든 일은 적극적으로 칭찬을 들을 정도로 일해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소연하기> 술 안먹고 얘기하면 내 얘기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술 먹고 얘기하면 엄마가 속상하나보다 하고 날 좀 이해해주는 것 같아/ 요즘 난 주로 자식문제와 남편사업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 핑계로 술을 먹지. 사람이 술을 먹으면 그때마다 핑계를 대거든. 옛날에는 시어머니 핑계나 시댁시구 핑계를 대고 먹었는데.....

6) 결과

이것은 중심현상이 전략을 통해 해결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음주경험을 통한 벗어나기 현상은 자신의 문제에 대한 자기통찰력이 길러짐을 통해 스트레스가 풀리고 따라서 행복하고 느긋함을 만끽하는 편안함과 의도적으로 음주를 절제하고 여성의 음주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하게 되는 적절한 관계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문제를 풀지 못하고 억누름에 의해 하소연에 치친 경우는 화가 나기도 하며, 우울함과 허무함을 느끼고 부부간에 싸움도 일어나는 불편함을 경험하며,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때때로 술이 고파지기도 하여 술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심이 생기는 부적절한 관계가 이뤄지기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성적 돌아봄> 아이들이나 시댁 어른이나 친정부모에게 나의 취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 나도 그런 모습을 하기도 싫고 감추고 싶어/ 걱정 다니는 여성은 남성처럼 마셔도 되지만...../ 처녀 때 모든 술자리에서 의도적으로 술은 조금도 안 했어요. 여자가 아무곳에서 일을 핑계로 술을 마시는 것이 싫었어요. <편안함> 엄마가 기분이 적당히 좋아서 야단도 안치고 기분이 좋으니 집안 분위기도 좋고...../스트레스가 쌓이면 술 생각이 나고 술을 많이 마셔서 다음날 숙이 안 편하면 조금만 마셔야지 하기도 하지만 난 술 마시는 것에 대해 많이 후회 해 본적은 없어. <불편함> 내가 이렇게 술 마시는 양이 많아지고 자꾸 마시게 되니까 처음에 애아버지가 싫어하더라고. 그때 많이 싸우고 화도 많이 내고 했지./ 최근 냉전이 장기화되어 술을 마시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남편도 술에 취해서 얘기도 못하고 말았어. 며칠간 어파서 누워있었지. <억지하기> 스트레스 쌓이면 먹게 되더라고. 그럼 중독인가?/ 나는 술이 고평때가 있을 정도야. 나는 탈춤을 추는데 뒷풀이는 당연한 것이고 시작하기 전 혼자서도 앞풀이를 할 정도야.

3. 관계진술

본 연구자료의 분석과정에서 나타난 중심현상과 맥락, 대처전략과 결과의 속성사이의 가설적 관계진술을 도출하였다.

- (1) 주변의 반응이 허용적이면 '벗어나기'는 촉진될 것이다.
- (2) 주변의 반응이 비난적이면 '벗어나기'는 억제될 것이다.
- (3) 자기 표현이 긍정적일수록 음주와 적절한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 (4) 자기 표현이 부정적일수록 음주와 부적절한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4. 이야기 줄거리

중년전업주부들의 음주경험은 이들이 처한 모든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현상이며 개인의 자원이 풍부한 경우에는 자기통찰을 함으로서 대응하고, 다른 한편으로 문제해결 방법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신이 처한 문제를 내부로 억눌러 남의 탓으로 돌리는 하소연으로 대응하게 된다. 따라서 음주를 통한 벗어나기 경험은 자기통찰을

획득한 경우 편안함과 반성적 돌아봄을 통해 음주와 적절한 관계를 이루게 되고, 하소연에 그친 경우 여전히 불편함이 있으며 이에 따라 자주 술로 문제를 잊으려하기에 술에 의지하게 되는 부적절한 관계를 이루게 된다. 중년전업주부들의 음주경험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자신들이 가진 속앓이를 풀거나 손쉽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이 되고 주변 사람들의 허용이나 비난의 정도와 자신의 신체 변화 및 심리행동적 변화를 통해 벗어나려는 현상의 정도나 속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주부들이 경험하는 음주는 주변이나 자신의 변화를 인지하여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에서 탈출하여 이들을 억누르는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중심현상에 이른다.

5. 유형 분석

중년전업주부의 음주경험을 '벗어나기'의 정도, 주변의 반응, 자기표현의 방법에 따라 4가지 유형이 나타났다.

- (1) 벗어나기에 적극적이고 주변의 반응이 허용적이며 긍정적 자기표현을 구하여 음주와의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는 유형
- (2) 벗어나기에 적극적이거나 주변의 반응이 거부적이며 부정적 자기표현을 통한 음주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는 유형
- (3) 벗어나기에 소극적이거나 주변의 반응이 허용적이며 긍정적 자기표현을 구하여 음주와의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는 유형
- (4) 벗어나기에 소극적이고 주변반응이 거부적이며 부정적 자기표현을 통한 음주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는 유형

V. 논 의

본 연구에서 중년전업주부의 음주의 동기를 보면 관계 유지를 위한 것이나 좌절이나 갈등, 화병, 불안 등의 스트레스를 해결하거나 또는 구하기 쉬워서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주행동의 발생이론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어울림의 경우는 사회학습이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첫 음주를 동료 집단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시작하며 이때의 동료들은 음주 행동 패턴의 모델로 작용한다(Charles 등, 1991). 우리나라도 예로부터 공동체가 개인을 통제하기 위한 음주유형이 존재했다(한태선, 2000). 참여자들의 경우 공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않지

만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음주 행동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사람들이 술을 먹기 위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술자리라는 의미가 부여하는 관계 유지를 위해 술을 먹게 된다는 것(한태선, 2000)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들의 음주습관의 유형을 볼 때 사회적으로 남성보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남성보다는 집에서 마시거나 혼자 마시는 특성(Chaikelson et al., 1994)으로 인과적 조건에서 비중을 따지자면 속앓이의 경우보다는 적을 것으로 사료된다. 속앓이의 경우도 음주행동을 통해 긴장이나 불안 그리고 고통감소 효과가 획득되기 때문에 지속되는 학습이론으로 설명된다. 중년여성의 스트레스는 한국사회가 가진 유교의 가치와 서구의 가치가 혼재되어 있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경험하는 관계의 이중적 갈등과 중년기 여성이 경험하는 빈둥지 현상과 동반하여 더욱 가중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는 시도 중의 하나가 음주행동을 선택하는 것이다. 접근성에 있어서는 먼저 언급한 음주행동을 선택하는데 공간적으로 구하기 쉽거나, 눈에 띄는 가까운 곳에 있거나, 혹은 값이 저렴하여 더욱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자들 중 중년기의 여유 있는 시간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고 할 일이 없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음주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건강한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중재가 요구되는 점으로 간주된다.

참여자들의 음주경험에서 나타난 '벗어나기'는 평소애 하지 못했던 말을 음주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표현함으로써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였으며 이는 말을 하지 못하는 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고 싶고, 현재 직면한 문제에서 도피하거나, 현재 내 모습이 철저히 망가지는 경험을 통해 이들이 얽매어 있는 모든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음으로 나타났다. 사교적 음주자와 문제성음주자들은 알코올로 긴장이나 불안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되는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고 이완을 증가시키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공수자, 1995). 또한 여성이 알코올의 적당한 양을 마셨을 때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우울이 감소됨을 경험하는 것(Lipton, 1994)이나 적당한 음주가 사회상황에서 더욱 이완이 되거나 감정표현이 증가되거나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이 증가된 다는 긍정적 결과(Ashley 등, 1997)에서 볼 때 참여자들의 음주경험과 일치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적당한 양의 음주가 오히려 여성의 걱정을 증가시키고, 주장능력을 저하시키는 결과

도 있다(Wilson 등, 1989).

참여자들이 음주를 통해 경험하는 '벗어나기'는 가족이나 타인의 이해 정도 즉 주변의 반응이 이들의 음주행위에 허용적인지, 거부적인지에 따라 또한 음주에 따른 신체변화나 심리행동적 변화 등을 경험하며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여성들의 음주에 대한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연구들을 고찰한 것을 보면 알코올을 섭취하는 여성이 같은 행동을 하는 남성보다 더 일탈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러한 사회의 반응은 여성의 알코올 사용을 숨기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Beckman, 1975). 따라서 여성의 음주는 그 사회의 여성관과 음주관의 이중적 잣대에 의해 수용정도가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참여자들의 '벗어나기' 경험은 개인들이 갖고 있는 성격이나 자아존중감, 기존의 문제해결방법, 술에 대한 인식에 의해 두 가지의 대응전략을 취하게 된다. 높은 자아존중감이나 다양한 문제해결방법을 가진 경우는 이들이 음주를 하게 하는 것에 근본적인 자기통찰력이 생성되었다. 자아존중감은 한 개인의 정신건강과 적응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환경과 개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전개되는 요인임을 고려해볼 때 현대와 같이 음주를 하게 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상황을 올바르게 평가하도록 도와주며 삶의 성공적인 적응에 필요한 잠재력으로 작용한다. 그렇지 못하고 부정적인 합리기제로 하소연에 그친 경우에서는 결과적으로 음주와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긍정적인 자기표현을 하는 경우는 음주경험을 통해 '벗어나기'가 잘 되어 이후 음주라는 수단을 적절히 이용하게 되는 관계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부정적인 자기표현을 하는 경우는 음주로 인한 신체나 심리 행동에서 잠시 '벗어나기'를 경험하였지만 술로 인한 작용이 멈추게 되면 참여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음주의 인과적 조건들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남아있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음주경험은 해결되지 않은 불편함에서 벗어나기를 다시 경험하고 싶어 음주를 반복하게 된다. 이것은 정상음주에서 문제음주로 넘어갈 수 있는 여지로 제공될 수 있다. 청소년들이나 여성들은 우울한 기분을 해소하고 정서상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술이나 다른 약물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자신의 우울증을 달래기 위해 술을 약처럼 복용하는 사람들은 알코올중독자로 발전하기 쉬울 뿐 아니라 자살의 가능성도 높다(Albright, 1999). 이는 음주행동 발생요인에서 볼 때 다른 발생요인은 고려치 않고 단지 긴장감 소이론에 근거를 둔 설명으로 다소 제한적이다. 사람들

이 왜 너무 많이 마실까? 에 대한 의문은 문제성음주를 중심으로 알코올 중독의 질병개념에서 통제력의 상실을 가지고 제한적으로 설명한다(Jellinek, 1960).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음주 경험의 유형에서 보전대 간호중재 전략으로 음주와 적절한 관계 즉 정상음주를 지속시키는 관련요인을 확인하여 음주와 부적절하고 의존적인 관계인 문제음주의 예방프로그램에 적용하여 보는 것이 고려된다. 그러나 왜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수준으로 오랫동안 음주를 계속할 수 있을까? 에 대한 해답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공수자, 1995).

VI. 제 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중년 직장 여성의 음주경험연구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 중년 전업주부가 겪는 스트레스에 대해 음주 외에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탐색적 연구가 필요하다.
3. 정상음주에서 문제음주로의 변화과정에 대한 탐색 연구가 필요하다.
4. 정상음주를 지속시키는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Ahn, H. R., Pai, H. J., Kim, E. S (1999). 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the degree of drinking of the aged in the C city, *J of Korean Psychiatr Nurs*, 8(2), 478-492.
- Albright, A. V (1999). Vulnerability to depression.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34(2), 393-407.
- Ashley, M. J., Ferrence, R., Room, R., Rankin, J., & Single, E (1994). Moderate drinking and health. Report of an international symposium. *Canadian Medical Association-Journal*, 151(6), 1-16.
- Beckman, L (1975). Women alcoholics: A review of social and psychological studie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36, 797-824.
- Chaikelson, J. S., Arbuckle, T. A., Lapidus, S., Gold, D (1994). Measurement of lifetime

- alcohol consumption.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5, 133-140.
- Charles K., Prokop et al. (1991). *Health Psychology*. Newyork, Macmillan Pub. Company. Cooper.
- Chun, S. S (1998). A study on the estimation to the life expectancy lost by drinking. *J. Korean Public Health Assoc*, 24(1), 153-166.
- Gambert, S. R (1997). Alcohol abuse: Medical effects of heavy drinking in late life. *Geriatrics*, 52(6), 30-37.
- Gong, S. J (1995). Theoretical models of causative factors in drinking behaviors: A review of the literature for nursing practice and research, *J of Korean Psychiatr Nurs*, 4(1), 65-78.
- Grant, B (1994). Alcohol consumption, alcohol abuse and alcohol dependence: The United States as an example. *Addiction*, 89, 1357-1365.
- Han, T. S (1998). Economic and social costs of alcohol abuse in korea and policy issues (*Policy Material 98-01*), KIHASA.
- Han, T. S (2000). Moderate drinking in terms of socio-cultural aspect, *J. Korean Public Health Assoc*, 26(4), 383-392.
- Heo, E. J., Kim, M. S., Kim, K. G (2001). Drinking Patterns and Alchol-related problems in women, *J. Korea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15(1), 202-215.
- Jellinek, E. M (1960). *The disease concept of alcoholism*. New Heaven, Colleague & Univ. Press.
- Johnson, P. B (1982). Sex differences, women'-roles and alcohol use: Preliminary national data. *Journal of social Issues*, 38, 93-116.
- Kang, E. S (1995). A grounded theory study of experience of the alcoholics'wife. *The Korean Nurse*, 34(3), 63-66.
- Kim, O. S (1999). The effects of loneliness on alcohol drinking, smoking, and health perception in college students. *J of Korean Acad Nurs*, 29(1), 107-116.
- Klaich, K (1996). *The daily experiences of women with alcoholism teaching tales about women's process*. University of Washington p398.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1999). *Korea Statistical Yearbook*. National Statistical Office.
- Lee, C. T (2000). Medical aspects on moderate drinking. *J. Korean Public Health Assoc*, 26(4), 373-382.
- Levine, H. G (1984). What is an alcohol-related problem?. *Journal of Drug Issues*, winter: 45-60.
- Lipton, R. L (1994). The effect of moderate alcohol us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4, 1913-1917.
- Page, r. M., & Cole, G. E. (1991). Loneliness and alcoholism risk in late adolescence: A comparative study of adult and adolescents. *Adolescence*, 26(104), 925-30.
- Peplau, L. A., & Perlman, D (1982). Perspectives on Loneliness. In L. A. Peplau, & K. Perlman(Eds.), *Loneliness: 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pp.1-18)*. New York: Wiely.
- Strauss, A. L., Corbin, J. M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Suh, Y. O (1995). *Structural model of health-promoting lifestyle in midlife women*.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Nursing. Kyung Hee University.
- Sung, G. W (1997). Degree of cognitive function self-esteem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by aging. *J of Korean Acad Nurs*, 27(1), 36-48.
- Wilson, G., Brick, J., Adler, J., Cocco, K., & Breslin, C (1989). Alcohol and anxiety reduction in female social drinker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0, 226-235.

"술문화 유별나 단단히 각오해야". (2001, December 19). The Kukmin Daily.

알코올 중독 주부 급증 환자 대부분 30·40대. (2002, May 2). The Korea Daily News.

- Abstract -

The Drinking Experience of Full-time Middle-aged House Wives

Kim, Jee Mee · Lee, Jueng Ae***

*Kim, Seong Hee****

There are few research on the social drinking experience reported by women. Thu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increasing tendency of womens drinking experience in the socio-cultural context. This study was aimed to explore and delineate the drinking experience of full-time house wives base don Strauss and Corbin's grounded theory (1998).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0 full-time middle-aged house wives who were living in Seoul region.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veral in-depth interviews and observations until the theoretical saturation was achieve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trauss and Corbin's grounded theory method. The results of this study generated a paradigm that the drinking experience of the full-time middle-aged house wives has a core category of 'free-oneself-from' and is also connected with mingling, anguish, accessibility, reaction of other people, change, personal resources, self-expression and building relationships by drinking.

All processes from the occurrence of the central phenomenon to extinction are as follows:

- 1) Starting the process of the drinking experience for mingling and resolving anguish, and by having an easy accessibility;
- 2) Perceiving the process of reaction by other people, physical change of herself, and psycho-behavioral change;
- 3) Experiencing the process of free-oneself-from thorough drinking;
- 4) Acknowledging the process of the resources for free-oneself-from;
- 5) Selecting the process of self-expression according to the resources;
- 6) Building the process of the relationship with drinking as a way of self-expression.

Based on this paradigm, 4 hypothesis and 4 types are generated. Thus,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useful to develop nursing interventions to improve the self-esteem of the full-time middle-aged house wives and to provide them various methods of problem solving strategies. This study also proposes that there should be a strategic program for the women so that they could make a route for positive self-expression by achieving a proper relationship with drinking.

Key words : Full-time middle-aged house wives, Drinking, Grounded theory

* Time Lecturer, Hanyang University

** Kyungbok college, Nursing Department

*** Seoul National University Children Hospital